

지명 해석의 새로운 인식과 방법

도수희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지도를 펴놓고 들여다 보면 크고 작은 지명들이 팍 차 있다. 지명은 사람들이 사는 터전의 고유명인지라 자연적으로 그 수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 활용 빈도 역시 다른 어휘보다 월등하게 높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보편적이라서 그 런지 지명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깊지 않은 편이다. 아울러 지명에 대한 해석도 너나 할 것 없이 밥 먹듯 쉽게 하려 드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지명 해석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물론 고유 지명이 정확하게 漢譯(훈차표기)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표기에 차자된 한자의 뜻(훈)만 알면 쉽게 해석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샘골 : 泉洞, 돌다리 : 石橋, 한밭 : 大田, 안골 : 內洞, 갯골 : 邊洞, 숲말 : 林里, 앞말 : 前洞, 솥리 : 裡里, 대실 : 竹谷, 숯골 : 炭洞, 못골 : 池洞, 긴밭들 : 長田里’ 등과 같이 고유 지명에 대한 한자 지명이 완벽하게 한역 대응할 경우에는 고유 지명의 뜻과 구조를 거의 직감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해석할 수도 있다.

우리 지명 중에는 이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결코 적지는 않다. 그래서 흔히들 모든 지명을 쉽게 해석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듯 용이한 해석의 표층을 벗기면 그 다음부터는 점점 난해한 층위가 거듭된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가령 大德은 '大田+懷德'에서 '大'자와 '德'자를 절취하여 개정한 복합 지명이다. 따라서 신생지명 '大德'에는 2郡의 뜻이 통합된 새 뜻이 부여되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大德'을 혼차표기 지명으로 인식하고 '큰덕'으로 해석함이 보편적이다. 즉 大德人 우암(송시열), 동춘당(송준길) 등이 살던 고장이요, 근래에는 덕이 많은 선비들(대덕연구단지의 과학자들)이 사는 고장이 되었으니 '大德'과 기막히게 적중한다고 풀며 찬탄한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이 빗나간 해석이다.

겉으로 보기엔 동일한 '大田'도 '한밭'으로 해석하면 완전히 빗나가는 경우가 있다. 전남 담양군의 '大田'은 '大山+葛田→大田'과 같은 통합 지명이기 때문에 결코 '한밭'의 뜻이 아니다. 이런 내막을 모를 경우에는 모두를 '한밭'으로만 뜻 풀이하려 들 것이다. 잘 알려져 있는 '大淸湖'는 이 湖水와 인접한 중심권역이 大田과 淸州이기 때문에 두 지명에서 '大'자와 '淸'자를 절취하여 '大淸湖'라 명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세기가 지난 뒤에 그 작명 과정을 모르는 세대에 가서는 '크게 맑은 호수'라고 안이하게 한자의 훈에 따라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보다 더 어려운 지명 해석의 층위는 음차 표기의 한자를 훈자 표기로 착각하는 경우이다. 가령 지명소 '둔'(屯·屯)은 '屯谷, 屯山, 大屯山, 月屯, 達屯, 生屯' 등과 같이 전국적으로 흔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 중에서 대전광역시외의 신시가지로 부상한 이른바 '屯山지구'의 '屯'을 예로 들어 보자. 이 곳에는 마침 삼관 구사령부, 공군기교단, 통신학교 등의 군부가 8·15 광복 이후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주둔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신시가지가 조성되기 직전에 모두 이전하였다. '오비이락'격으로 지명소의 표기에 차자된 '屯'자의 의미와 기막히게 적중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屯'자는 혼차자가 아니라 음차자일 뿐이다. '德頓忽: 十谷城, 買旦忽: 水谷城, 於支吞: 翼谷' 등의 '頓·旦·吞=谷'와 같이 고대국어에 뿌리 박혀 있는 '谷'의 의미인 고유 지명소 '둔'을 '屯'자로 음차 표기한 것으로 봄이 마땅하다. 이 '둔뢰'(屯山)에서 선사유적(구석기→신석기→청동기 시대)이 발굴된 사실이 아주 이른 옛날부터 '둔뢰'라 불리어 왔음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지명 해석에서 보다 더 난해한 층위는 혼음차 표기 지명을 혼차 표기로 착각하고 해석하는 경우이다.¹⁾ 가령 '팔거리: 豆腐'의 대응에서 '豆腐'를 혼차 표기

로 해석한다면 ‘팔갈이’가 된다. 이것을 근거로 현지 노인들은 ‘팔을 많이 가는 곳이다’란 뜻으로 해석하기가 일쑤이다. 그러나 실지로는 그 곳에 ‘팔밭’이 많지 않다. 따라서 타 지역에 비하여 그렇게 부를 만큼 ‘팔’이 다량으로 생산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 지명은 ‘팔’과는 무관한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우리 지명의 명명법에 ‘안팍’[內外]을 기준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內洞 : 外洞, 內山 : 外山, 山內 : 山外, 內俗離 : 外俗離’ 등이 그에 해당한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조선조의 개국 직후 최초의 移都 계획을 세우고 8개월의 역사 끝에 중단한 新都邑地가 이른바 豆磨面의 인근에 위치한 ‘新都內’이었다. 이 곳의 전래 지명은 ‘신도안’(新都內)이다. 여기 ‘안’[內]에 대하여 그 밖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안팍’의 개념에서 ‘팍거리’란 지명이 생성된 것이다. 지금까지도 흔히 ‘팍거리’라 부르는 고유 지명을 차자 표기한 것이 ‘豆磨’이다. 「훈몽자회」 등에 ‘팍두(豆), 갈마(磨)’로 기록되어 있으니 옛날에는 ‘豆’의 훈음이 ‘팍’이다. 따라서 ‘신도안’의 ‘팍거리’란 뜻으로 ‘팍거리’를 훈음차 표기한 한자 지명이 ‘豆磨’일 뿐이다. 이와 같이 훈음차 표기의 지명을 훈차로 착각하고 풀면 얼토당토않게 잘못된 해석을 빚어내게 된다. ‘柳, 楊’자로 표기된 지명도 ‘버들’의 뜻이 아닌 경우가 허다하다. 즉 ‘벌들’[坪野]을 나타내기 위하여 훈음차 표기한 경우가 많다. ‘宕’자로 표기된 지명소도 오히려 고유어 ‘고개, 재’[嶺, 峴]를 나타내기 위한 훈음차일 가능성이 짙다. 고대국어에서 ‘波兮’(=嶺·峴)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또한 ‘石’자로 표기된 지명소는 훈음 ‘돌’이 ‘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坪’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나븐들’(<넓은들)이 ‘廣石’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그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우리는 지명 해석에 있어서의 몇 가지 난해의 층위를 지명의 차자 표기법의 종류에 따라서 알아보았다. 이 밖에도 지명의 해석에 적용되어야 할 기본적인 바탕은 어디까지나 국어학의 해박한 지식이다. 누구든지 지명 해석에 임하려면 먼저 국어학의 지식을 고루 갖추어야 한다. 환언하면 국어학의 방법으로 지명어의 구조를 분석하고, 지명소의 뜻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지명소끼리의 마주침에서 여러 가지의 음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본래의 지명소가 거의

1) 필자는 지명 차자 표기법을 ‘음차 표기법, 훈차 표기법, 훈음차 표기법’으로 3분하여 쓰고 있다. 여기 ‘훈음차 표기’란 뜻(훈)을 버리고 ‘훈의 음’(훈음)만을 취하여 표기한 독특한 한자의 차자 표기법을 이른다.

몰라 보게 변모하게 된다. 지명이 변모하기 전의 본 모습을 복원하는데 있어서도 국어학적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국어학적인 면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비로소 원초형이 복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변화를 입기 전의 본 모습이 파악되어야 그 지명의 완벽한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2.

대전 시내에는 三大 하천이 관통하여 흐른다. 그 중의 하나가 '버드내'(柳等川>柳川)이다. 현지인들이 '버드내'라 부르는 이 '내'[川]는 「동국여지승람」(1481)에 가장 먼저 '柳等川'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다시 '柳川'으로 표기 변화하였다. 이 '버드내'의 내력을 그 곳에 사는 노인들에게 물으면 '냇둑에 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어진 지명이다'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이 해석은 '柳'자의 뜻에 유인된 오석일 따름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냇둑은 일제시대에 내폭을 최대한으로 넓힌 뒤에 양안에 새로운 둑을 쌓고 부분적으로 둑위에 버드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10여 그루의 버드나무가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옛날에는 버들을 심을 둑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와 '버들'[柳]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다만 이 '내'의 양편에 '벌판'[坪]과 '들판'[坪]이 아주 넓게 펼쳐져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과거에는 폭우로 냇물이 양쪽의 '벌판'과 '들판'으로 범람하였던 것이다. 이 '벌판'과 '들판' 사이를 흐르는 내이기 때문에 '벌들내'라 지형 명명한 지명이다. 따라서 우리는 '벌+들+내'와 같이 3개의 지명소로 합성된 원형을 재구할 수 있다. 이 원형이 설단자음 앞에서 'ㄹ'탈락 규칙에 의하여 '버드내'로 변형되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지세에 따라서 붙여진 지명이기 때문에 그 뜻은 '柳'의 훈인 '버들'이 아니라 오로지 '벌판과 들판 사이를 흐르는 내'란 뜻을 나타낸 훈음차 표기 지명일 따름이라 하겠다.

지리산의 '피앗골'은 너무나 유명한 계곡명이다. 이 '피앗골'을 '6·25 동란 때에 그 곳이 격전장이었기 때문에 피로 물든 골짜기다'란 뜻으로 풀이하는 경향이 있다. 이 해석이 거의 공인되어 보편적인 지식으로 확산되어 있다. 이와 같이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발생한 장소의 전래 지명과 그 사건 내용이 피상적으로 부합되는 경우는 엉뚱한 해석을 유발하는 함정이 되어 준다.

그러나 지명 '피앗골'은 6·25 동란 이전부터 그렇게 부르던 전래 지명이다.

따라서 '6·25 동란의 격전지'란 의미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아주 오래된 묵은 지명임을 확신하게 된다. 그러면 '피앗골'은 무슨 뜻이며, 이 지명의 원초형은 어떤 어형이었던 것인가를 추구하여 볼 필요가 있다. 문제의 '피앗골'은 구례군 土旨面 內東里에 위치한 오래된 마을로 '피골, 피앗골, 피야골, 직전' 등의 별칭이 있는데 한자로는 '稷田'으로 표기되어 왔다. 여기서 우리는 우선 '稷+田'으로 지명소를 분석할 수 있다. 옛 문헌들이 '피爲稷(해례 용자례)', '피직稷'(『훈몽자회』상 12)이라 하였으니 '피'와 대응하는 '稷'은 훈차 표기이다. 따라서 그 뜻은 '피[稷]이다. '골'은 접미 지명소로 '洞'의 뜻이니 '피+앗+골'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앗'은 필연코 '田'에 해당하는 지명소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田'의 옛음은 '던'이기 때문에 '앗'과는 지나치게 동떨어진 음형이다. 여기서 우리는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지명 '대밭[竹田]의 '밭'[田]과 '피앗골'의 '앗'을 음운사적인 면에서 선후관계의 인과로 풀면 될 것이다. '피앗'의 앞선 형을 '피밭'으로 재구할 때 그 환경이 '대밭'()대밭)과 같기 때문에 '피밭)피밭)피왓)피앗'의 변화 과정을 경험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동계의 음운 변화 현상이 '갈밭(葛田)>갈밭)갈왓)갈앗)가랏(전북 익산 春浦, 달밭[月田]달밭)달왓)달앗)다랏(전북 장수 溪北, 늘밭(於田)>늘밭)늘왓)늘앗)느랏(전북 완주 參禮)' 등과 같이 동일 방언권에서 확인된다. 여기서 'ㅂ>ㅃ >w)ㅅ'의 음운 변화 규칙에 따라서 '피앗'(<피(稷)+밭(田))으로 결과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늪은 피밭'이 있었거나 '피밭이 많았던 산골'이란 뜻으로 지어진 지명으로 해석함이 옳은 것이라 하겠다.

'늘개[板浦](전북 익산 용포)는 '닐개>늘개)늘애'로 변한 과정의 중간 단계의 어형이다. 이 지명은 '닐+개'의 구조로 분석할 수 있다. '닐'은 '板'의 훈이고, '개'는 '浦'의 훈이다. '닐'늘'은 이른바 이곳 방언의 음운 규칙인 폐구조음성으로 인한 것이고, '개'애'는 『용비어천가』의 지명 '줄개>줄애(熙浦)와 같이 'ㄹ'아래에서 'ㄱ'이 탈락하여 온 규칙으로 인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닐'(板)이 훈차인가 훈음차인가에 있다. 혹 '닐다리[板橋]라면 흔히 현지에 '판자다리'가 있으니 '닐[板]이 훈차임에 틀림없겠으나, 이 경우는 포구명에 접두하여 있으니 쉽게 속단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를 다른 데서 찾아야 바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 '늘'(<닐)의 본 뜻은 무엇인가. '곰개[熊浦](전북 익산)으로부터 '봄개[春浦]까지 여러 개의

‘개[浦]가 널려 있기 때문에 모두 통털어서 ‘널개>늘개>늘애’로 부르고 한자로는 ‘板浦’라 적는다. 따라서 여기 ‘板’의 훈인 ‘널’은 오로지 ‘連’의 뜻을 적기 위한 훈음차일 뿐이다. ‘널’ (=판자)이란 뜻을 버리고 오로지 그 훈의 음만 빌어 동음이의어에 해당하는 ‘連’의 훈인 고유어 ‘널-~늘-’을 적었기 때문이다.

백제군의 최후 결전장이었던 황산벌의 지명 ‘黃等也山(백제)>黃山(통일신라)’의 ‘黃’은 훈차인가 훈음차인가. 현지에 가서 아무리 살펴봐도 ‘黃土山’이 발견되지 않는다. 백제 시대에도 다름없이 ‘黃土山’이 있었기 때문에 ‘黃色’이란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차자 표기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모름지기 동음이의어에 해당하는 다른 뜻을 나타낸 훈음차 표기였음이 분명하다. 실로 이 고을의 동쪽에 낮은 산봉우리가 무려 36개나 늘어서 마치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그러기에 고려 태조(A.D 940)가 ‘黃山’을 ‘連山’으로 漢譯한 것이라 하겠다. 이런 경우에 ‘黃’은 훈음차이고, ‘連’은 훈차로 ‘느르(되)’를 표기한 것이라 하겠다. ‘느르-連>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늘개’(板浦)의 경우와 결부하여 생각할 때 비슷한 쓰임새로 ‘黃·板’은 고유어 ‘느르-連>늘-’을 표기하기 위하여 훈음차한 것이고, ‘連’은 정확히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한 한역이라 하겠다.

가령 고유 지명 ‘소라단’은 이것과 대응하는 한자 지명 ‘松田內’가 없다면 그것의 원초형을 복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명소의 분석도 그것의 뜻도 파악할 도리가 없다. 마침 한자 지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솔[松]+밭[田]+안[內]’와 같이 원초형을 복원하고 일단 각 지명소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이 ‘솔밭안’이 음운 변화 규칙에 의해 ‘솔밭안>솔안안’으로 변하고 다시 연음규칙에 의하여 ‘소라단’이 된 것이라 하겠다.

옛말인 ‘고지’(串·口)가 경음화하여 ‘꼬지’가 되고 다시 ‘꽃’의 단계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돌꼬지’가 ‘石花’로 적히기도 한다. 이 때에도 ‘花’의 뜻은 버려지고 오로지 그 훈의 음만 빌어(훈음차) ‘고지’(>꼬지)꽃을 적어 ‘串·口’의 뜻을 담았을 뿐이다. 한편 이 ‘꼬지’는 ‘꼬장배기’(花粧)이란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별칭은 ‘꼬지+앙+박이>꼬스+앙+백이>꼬장백이’의 과정을 겪으면서 변화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두들기~두들가리’(청원 북일)도 기본형인 ‘두둑’에 접미사 ‘-이’가 붙어 ‘두둑+이→두들기’가 생성된 후에 다시 ‘두들기+아리>두들기+아리>두들가리’의 변화 과정을 경험하였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다음으로 살펴볼 난해의 층위는 음차 표기 지명을 훈차 표기로 오인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우리는 '負兒嶽'과 '三角山'의 관계를 하나의 표본으로 삼아 시론할 기회를 가져 볼 수 있다.

이른바 믿을 만한 옛 문헌인 『고려사』, 『세종실록』, 『동국여지승람』 등은 '三角山'이 '負兒嶽'의 승계 지명이라 단정하였다. 따라서 이후의 석학들도 아무런 의심없이 위의 단정을 신뢰하여 왔다. 어느 누구도 '三角山'이 '負兒嶽'의 승계 지명임을 논증한 바가 없었는데도 그 신뢰도는 전혀 흔들림이 없어 왔다. 그리고 '負兒嶽'을 한역 지명으로 확신하고 글자마다의 뜻에 따라서 '아기를 업은 모양의 지형이기 때문에 명명된 山名이다'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데 문제가 있다. 만일 '三角山'이 '負兒嶽'을 이은 지명이라면 '三角山'에 위에서 해석한 '負兒嶽'의 뜻이 어느 정도만이라도 잔존하여 있어야 한다. 그런데 '三角山'에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

실로 '負兒嶽'은 백제의 건국 초기에 나타난 '慰禮忽', '彌鄒忽'과 자매적 관계가 있는 고지명이다. 여기 '慰禮忽'과 '彌鄒忽'이 음차표기 지명임은 이미 공인된 사실이다. 그런데 백제 초기의 자매적인 三大 지명 중의 하나인 '負兒嶽'만 훈차 지명이었겠는가. 백제 건국 초기의 지명 표기이고 보면 다른 두 지명과 함께 음차 표기 지명이었을 가능성이 짙은 것이다.

만일 '負兒'가 음차 표기였다면 이 두 글자의 고대음을 우선 찾아보아야 한다. '負'의 중고음은 *biəu이고, '兒'의 중고음은 *ńje이다. 우리의 속음은 '질부負, 아히스 兒'(『훈몽자회』하 10, 상 16)이다. '嶽'은 부여계어로 'ap'(押)이었다. 따라서 '負兒嶽'은 백제의 초기어로 *pusa-ap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pusa(負兒)는 『삼국사기』(지리 2,4)의 지명에서 '夫斯波衣:松峴, 夫斯達:松山, 扶蘇押:松嶽' 등과 같이 '夫斯·扶蘇:松'으로 대응한다. 따라서 *pusa(負兒)는 '松'을 뜻하는 백제의 초기어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 *pusa(負兒=松)은 거의 동일 시기에는 溫祚, 沸流 형제의 모국인 卒本扶餘에 예속된 松壤國의 '普述水:松讓(壤)'(『삼국사기』권 37)에서 '松'에 대응하는 '普述>(*pusa)와 유사하며, 후대로는 위에서 제시한 '夫斯·扶蘇'로 승계된 뒤에 백제의 마지막 수도인 所夫里의 '扶蘇山'에 이어진다. 그리고 다시 고려의 수도 扶蘇押(=松岳)에까지 이어진다.

이와 같이 '負兒'는 '三角山'(일명 쇠귀=牛耳)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慰禮, 彌鄒'와 같은 시기에 '松'을 뜻하는 백제의 초기 지명어였을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필자는 우리 국어 생활에서 가장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지명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지명은 누구나 쉽게 해석할 수 있다는 낡은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국어의 어휘사 및 어휘론에 있어서 지명의 가치, 우리 국어 생활에서 점유하고 있는 지명의 위상 등에 대한 인식을 깊게 가져야 한다. 또한 지명 해석에 대한 인식도 새로워져야 한다. 지명 해석에 있어서 난해의 층위가 겹겹이 중첩되어 있음을 새롭게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비과학적인 해석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기왕에 잘못 해석된 지명들이 바른 해석의 혜택을 받는 밝은 미래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